

어학연수·인턴 등 취업준비

4년제 대학 '6년 시대'로

대학을 다니면서 어학연수·인턴 등 별도로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이 늘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데 평균 6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t.com)는 1997~2005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의 이력서 23만250건을 조사한 결과, 2005년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11개월로 집계됐다. 17일 밝혔다.

이는 1997년 대졸자의 재학기간인 5년4개월보다 7개월이나 늘어난 것이다. 대졸자 평균 재학기간은 5년7개월(1998년 졸업생)→5년9개월(2000년)→5년11개월(2003년)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남자 대졸자의 재학기간은 군 입대 기간을 포함, 6년1개월이었으나 2005년도 졸업자는 평균 7년이였다. 특히 이 기간에 육군 복무 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 남자 대졸자의 대학 재학기간은 8년 사이 1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도 여자 대졸자의 경우에도 1997년 졸업자(4년2개월 재학)보다 5개월 증가한 4년 7개월을 기록, 성별에 관계없이 대학 재학기간이 증가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초등생 1·2년생 74%

“영어 과외 받는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의 70% 가량이 이미 영어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7일 경인교대 박약우(영어교육과) 교수팀에 의뢰해 '초등학교 초기 영어교육 확대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12월 전국 초등 1·2년생 3천280명, 학부모 2천990명 및 영어교육전문가·초등교사·유치원교사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초등 1·2년생 학부모의 73.7%는 자녀들이 영어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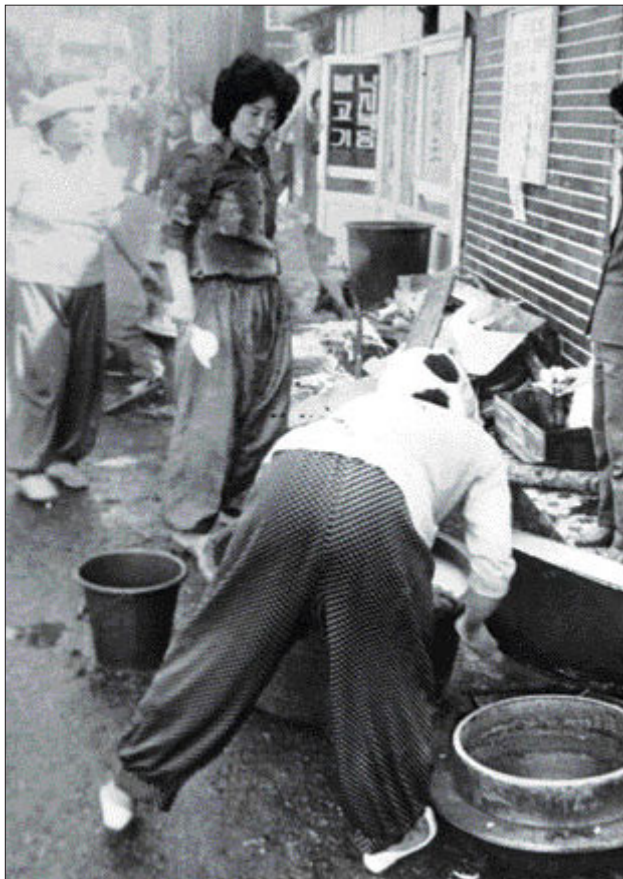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초등 1·2년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량을 물어본 결과 '매일 한다'가 36.9%로 가장 많았고 ▲주 1회 31.3% ▲주 2회 16.7% ▲주 3회 15.1% 등이 뒤를 이었다. 학습방법은 ▲화원 수강 36.8% ▲학습지 23.7% ▲그룹과외의 11.9% ▲개별과외의 9.0% ▲부모님 7.6% ▲방송·인터넷 2.5% 순이었다. 영어 사교육 비용은 월 6만~10만원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1만~5만원 33.9% ▲11만~15만원 15.9% ▲16만~20만원 8.9% ▲21만원 이상 5.6% 등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56.8%가 영어가 중요과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5월 시인' 임동확의 광주에 보내는 편지

“주먹밥 나누며 그날을 기억하라”



80년 5월 23일 광주시 양동시장 아주머니들이 시민군들에게 줄 주먹밥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래는 항쟁 26주년인 2006년 5월 17일 광주시 금남로에서 열린 '5·18정신 계승을 위한 주먹밥 나누기' 행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 아무리 불잡으며 해도 세월은 매정하게 부여잡은 손을 뿌리치며 어디론가 흘러간다. 금강석처럼 단단하던 금남로의 결의와 맹서도, 오월의 덩굴장미처럼 순결하던 도청 앞의 분노와 절규도 희미해져 간다. 살아 있거나 죽어 있는 80년 5월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화살에 묶여 푸른 대기 속으로 녹아들거나 허공으로 사라져 간다. 그토록 아름다웠거나 슬펐던 양동시장의 기억도 한낱 한 줌의 재처럼 흩어지고, 문득 전혀 다른 얼굴의 현재만이 이미 지나간 과거와 미처 오지 않는 미래 사이에 엉겨주춤 서 있다. 벌써 사반세기가 넘어가는 세월의 무자비한 완력 앞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라곤 실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흘러간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현재'로 때가 되면 게릴라처럼 출몰한다. 오래 갈망하고 절실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시작은 끝을 향해 줄달음쳐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갈 뿐인 와중에서도, 오직 직선의 길만을 고집하는 불가역적이고 누적적인 시간의 파열이자 응결로서 혁명적 시간. 80년 5월의 광주는 한 번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성화(聖化)하며 천동번개처럼 느닷없이 다가온다. 그저 모든 것을 잊고만 싶은 무감각한 생활과 무차별한 일상의 흐름을 뚫고, 그 자체로 완벽하고 중단했던 해방 광주의 시간이 돌연 섬광처럼 치솟아 오른다.

그 중심에 그 어떠한 막강한 물리력이나 강제적 힘에도 풀릴 수 없었던 그날의 스크린 같은 주먹밥. 더러운 역사와 결별을 선언하고 굳게 쥐었던 '주먹'으로 다지고, 그러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밥'을 섞어 넣은 주먹밥의 시간이 있다. 전차를 앞세우고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 결코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적을 향해 수류탄처럼 날아가던 주먹밥. 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 때문에 도저히 물러설 수 없고, 도대체 질 수가 없었던 그날의 시민군들. 그 모든 이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의 허기를 채우던 주먹밥이 있다. 정병 총을 들고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열을 낮과 밤의 중심에 그 절대 순간, 절대의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다시 싸우게 했던 피의 소금물과 눈물

의 양념으로 뭉쳐 함께 나누던 평화와 연대의 주먹밥이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 주먹밥의 성찬을, '이것이아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이아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의 포도주다'.

너희는 모든 이들을 한 순간에 하나로 뭉치게 했던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참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폭파시키고자 했던 그날의 모든 합성을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과거의 모든 슬픔과 기쁨의 연속이자 밀려오는 미래의 절망과 희망이 분수처럼 뿜어 오르는 이 주먹밥. 죽기를 각오한 아들과 오빠를 차마 말리지 못한 채 손을 씻고 온갖 정성을 다해 다급히 만들었던, 그 어머니와 누이의 망설임과 결단이 묻어있는 주먹밥. 그리하여, 끝내 죽어간 모든 것을 살려내는 부활의 약밥

“ 모든 것을 살려내는 부활의 약밥. 끊겨버린 그 모든 믿음과 역사의 고리를 다시 풀 수 없도록 했던 무한한 인정과 다함없는 배움의 잔치상.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에도 흘러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원점회귀의 광주 공동체 밥상에 올려진 그 성스러운 주먹밥의 만찬을 결코 잊지 말라.

임동확 시인은



1959년 광주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및 동대 학원 졸(석사). 서강대 국문학과 대학원 박사. 시집 『매장시편』을

펴내면서 작품 활동 시작. 이후 시집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 『운주사 가는 길』 『벽을 문으로』 『처음 사랑을 느꼈다』 『나는 오래전에도 여기 있었다』, 5·18 20주년 기념 시선집 『꿈, 어떤 맑은 날』, 산문집 『듣기고 싶은 비밀』, 시문집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등을 펴냈다. 현재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겸임).



연예자 동원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배우 중 353명 3534명
문의 (062)366-4220

여고생 친구 협박 성매매 확대 가로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같은 학교 친구들을 협박해 이들과 성매매를 갖도록 하고 화대를 가로챈 남녀 고등학생 5명이 경찰에 달미.

○전남지방경찰청 여경수사대는 17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15·전남 모 고교 1년) 양 등 여고생 2명과 남고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 양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원조주체를 하겠다는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같은 반인 A(15)양 등 2명을 협박해 1회당 3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

○경찰 조사 결과 박 양 등은 A양 등에게 73회에 걸쳐 53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했으며, 이 돈을 빼앗아 오토바이 등을 사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1등 상가 영무플러스존 분양!

영무플러스존 주차전국 인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영무플러스존에 투자하십시오.

1588-0521 654-8844

"당당한 재혼 도와드릴게요"

50년 경력의 상담전문가로 '결혼준비'에 몰려있는 서비스

www.jehon.com

110생방송 (062) 527-3388